

무용전공자의 ‘체육학자 되기’ 과정*

추나영 · 장승현**

부산대학교

‘Becoming a Physical Education Scholar’ for Dance Majors*

Choo, Nayoung · Jang, Seunghyu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that dance majors face while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ir lives. To this end, this study utilized the narrative research proposed by Clandinin and Connelly, which is suitable for understanding individual experiences. According to the general case method, four female participants studying Physical Education in a PhD program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collect data, and the recorded data was documented and categoriz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in the stage of enrollment or transfer, they chose physic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narrow range of professional choices and the realistic situations in which dance was included in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econd, in the process of becoming physical education scholars, they encountered a hierarchical culture different from that of dance majors. They experienced limitations due to stereotypes and prejudices about dance major graduates, and lack of sports skills or interest in sports activities. Third, nevertheless, they worked hard to achieve their goals, and even now they are continuing to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rough constant efforts. These results provided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which had not been dealt with until now. Also, by examining their experiences, it helped to provide an implication to discuss the future path of dance majors in the sports industry.

Key words: dance, PhD in PE, narrative inquiry

I. 들어가며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의 개설은 국내 무용학과의 시작이었다(고경희, 백현순, 2013). 이후 1972년에 경희대학교의 석사과정 개설이 개설했고, 박사과정의 경우 1999년에 용인대학에 처음 개설했다(권인선, 2016). 이처럼 무용학과는 1980년대 예체능대학, 예술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학부에 소속되어 확산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적으로 학과를 신설하며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이중희, 2020).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흐름은 바뀌었다. 학령인구 감소, 교육정책의

변화, 대학 간 경쟁구도 등의 변화로 인해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병행되지 못했던 무용학과는 구조개혁의 직격탄을 맞았다(이지선, 2016). 그 결과는 무용학과 진학인원의 감소, 지방 대학 중심의 신입생 정원 축소, 학제간 통폐합, 무용학과의 폐과였다(이중희, 2020). 특히 이러한 변화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김화영, 배재열, 2021). 최근 10여 년간 무용학과의 폐과사례를 살펴보면 이는 잘 드러난다. 2005년 서원대학교, 2009년 청주대학교, 2009년 대전대학교, 2012년 원광대학교, 2014년 대진대학교, 우석대학교, 순천향대학교, 2015년 광주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 교신저자: 장승현,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E-mail: 5694640@hanmail.net)

제1저자: 추나영,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http://dx.doi.org/10.15812/ter.60.3.202109.451>

2017년 예원예술대학교, 경성대학교, 2021년 신라대학교의 무용학과가 폐과하였다.

이런 무용학과 위기는 너무나도 당연히 무용학과의 양성과도 밀접하게 관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용학과가 전술하였듯 체육대학, 예술대학, 예체능대학, 인문대학, 공연예술대학 등 다양한 명칭의 단과대학에 소속되어있으면서 학문적 체계성을 발전시킬 기회와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무용전공자가 체육으로 전향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양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는 무용과 체육 모두가 신체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문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무용학과가 체육대학 혹은 예체능대학에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무용이 교육과정의 체육교과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용교육혁신위원회’가 무용을 예술교과 영역 중 하나인 독립교과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진보연, 2021), 여전히 교과영역에서 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체육교과의 임용고시를 통과해야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실제 많은 무용전공자가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체육학과의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일은 빈번하다(장서이, 박혜연, 최의장, 2018). 물론 석·박사과정을 통해 학업 성취를 목적으로 체육학에 전향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학업을 마치고 무용학과 혹은 체육학과의 교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무용전공자의 체육학으로의 전향은 쉽지 않은 과정일 확률이 높다. 대학원의 진학을 자신의 전공을 학문적으로 심화한다는 의미, 즉 학부 때 배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과정(김우석, 2021)으로 본다면, 어렸을 때부터 무용에 집중¹⁾했고 대학에서 무용 실기와 지식을 쌓은 이들에게 체육학과 관련된 수업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다. 실제 신주영(2018)은 무용전공자들이 체육학에 진입하고 전문가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새로운 집단에 진입하고 그 집단의 관습, 규칙을 익히고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남성이 다수이며 집단주의, 군대문화가 잔존하는 체육학과라면 더욱 쉽지

않은 일일 테다(이남미, 이흥구,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²⁾가 어떻게 체육학을 전공하게 되며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학위를 마친 후에도 진정한 체육학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오랜 시간 동안 무용인이 되기 위해 매진해 왔던 무용전공자들의 체육학으로의 전향과 석·박사 학위의 과정, 졸업 후 체육학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 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동안 이와 유사하게 무용전공자의 체육학으로 전향과 적응에 대해 다룬 연구(신주영, 2018; 이의재, 방서영, 김보미, 2020; 장서이 등, 2018)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장서이 등(2018)의 연구는 무용을 전공했던 체육교사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적응하게 되는지 보다 자세히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체육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는지 살펴보았으며, 이의재 등(2020)의 연구는 무용전공자들이 체육교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학교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체육교사로서의 애환을 통해 이들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신주영(2018)은 무용전공의 체육학 대학원생들의 삶과 일상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연결하여 들여다보았다. 특히 신주영(2018)의 연구는 대학원생들의 삶과 일상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관점과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들이 체육학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활 그리고 졸업 후에 강사 또는 연구원의 신분으로 체육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들이 체육학자의 길을 걷게 되며 겪게 되는 경험과 고충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지금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체육학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자들은 어떻게 체육학을 선택하게 되는가? 둘째, 무용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출신으로서 체육학과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셋째, 무용전공자들은 체육학자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1) 대부분의 무용전공자의 생애 과정을 보면 어려서부터 무용 엘리트 교육을 받아 왔다(신주영, 2018).

2) 무용전공자라는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다. 가령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무용가로 활동하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를 고려하여 대학에서 무용관련학과를 졸업한 이들로 한정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부시절 무용을 전공한 이들이 체육학자가 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다 자세히 그들이 어떻게 체육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진입한 체육학 영역에서 어떻게 적응·노력하는지 그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Connelly & Clandinin, 1990, p.2)”으로 알려져 있다. 클래디닌(Clandinin)과 코넬리(Connelly)에 의해 고안되고 발전된 이 방법(Clandinin & Connelly, 2000)은 인간의 행위, 경험의 복잡성을 다루는데 기존의 연구방법(양적 연구방법) 보다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어 인간의 삶과 경험에 집중하는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염지숙, 2002). 따라서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는 무용전공자가 체육학으로 전향하여 학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부무용전공자이면서 체육학의 석사·박사과정을 밟아 현재 체육학에 몸담고 있는 여성체육학박사 4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특정한 집단이 공유하는 여러 속성을 가장 많이 대표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사례(typical case) 방법(김영천, 2006)에 따라 표집 되었는데, 여기에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3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제한사항을 설정한 것은 주제에서

드러나듯 연구 참여자가 학위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학위를 마치고 강사 또는 연구원으로서 겪은 경험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의 지인인 김진영의 도움으로 소개받아 진행되었다. 소개 과정에서 김진영에게 본 연구의 취지, 목적,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직접 만나 다시금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토대로 동의를 구하였다. 실제 연구 참여자를 물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서 연구에 동의를 표시한 이들은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총 4명이었다. 한편,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험의 풍부함’을 고려하다보니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되었다. 전공분야 역시 사회과학 전공자에 치우쳤는데, 전공분야가 그들의 경험에 있어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연구 참여자의 비율을 조정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개인적 특성의 내용구성은 본 연구의 주제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신원이 노출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간소화하여 제시하였다.

가. 장혜진

장혜진은 중학생부터 무용을 시작하였다. 만족스럽지 않은 입시결과로 원하지 않던 대학에 입학했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무용이 좋았기에 그녀는 졸업 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무용수로서의 생활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주변의 학벌에 대한 편견을 경험하면서 대학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무용관련, 체육관련 대학원을 응시하였고 그 중 체육관련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성명	성별	나이	무용전공 분야	체육전공 분야
1	장혜진	여	51	한국무용	사회과학
2	김진영	여	45	발레	사회과학
3	서동주	여	44	현대무용	사회과학
4	김현정	여	41	현대무용	자연과학

※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개인 사정으로 몇 년간 쉬고 난 후 그녀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현재는 강의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나. 김진영

김진영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무용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무용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아르바이트로 무용레슨을 하였다. 수입이 괜찮았지만 당시 이렇게 무용레슨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을 느끼며 대학원을 결심하게 된다. 주변의 조언을 받아 몇몇 대학의 무용관련, 체육관련 대학원을 고려하였고 결국 체육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석사, 박사학위 취득하였고, 연구원을 거쳐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 서동주

서동주는 중학생 시절 건강을 위해 무용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였고 아르바이트로 학교를 다니면서 무용레슨을 하였다. 무용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외국으로 가서 무용선생으로서 커리어를 쌓았다. 여러모로 지쳐있었던 그녀는 무용학과의 교수에게 체육관련 대학원 진학을 추천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대학원에 입학해 그녀는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원을 거쳐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라. 김현정

김현정은 사촌언니에게 영향을 받아 중학교 때부터

무용에 관심을 가진 후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용전공자로서 입시를 준비하였다. 그녀는 학교 무용교사가 꿈이었지만 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이 필요했다. 무용학과에서는 체육교사 교원자격증을 획득할 수 없었기에 체육관련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다. 현재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이후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7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따라 면담시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1회에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였다. 면담은 2회(비구조화 면담, 반구조화 면담)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자들 속의 내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연구자는 언급을 자제했으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면담 영역과 질문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면담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연구 참여자의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을 위해 음료와 식사를 제공하는가 하면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연구 참여자의 동료들 얘기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면담내용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녹음하였다. 그런 다음 해당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한글문서(한컴오피스2010)를 활용하여 전사작업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문

<표 2> 내러티브 면담 내용

주요 영역	질문내용
삶 전체의 개관	당신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당신의 어떤 사람입니까? ...(생략)
무용전공자로서 경험	어떠한 계기로 무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무용을 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초등~대학) ...(생략)
체육학을 전공하기까지 과정의 경험	어떠한 계기로 체육학을 수학하게 되었습니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당시 주변 상황(사회적, 역사적)은 어떠했습니까? ...(생략)
체육학을 수학하는 과정의 경험	체육학을 수학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생략)
체육학 강사 및 연구원으로서 경험	체육학의 강사 및 연구원으로서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생략)

서는 범주화작업을 거쳐 연구결과로 정리되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landinin &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방법의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에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의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현장에 들어가기’단계는 연구 동기를 떠올리고 연구 참여자들과 만나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로 본 연구자가 그 동안 주변에서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학부무용전공자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 무용을 시작했었던 순간부터 대학에서 무용학과에서의 경험, 석·박사 과정으로 체육학과를 가게 되었던 과정과 입학 후 경험, 또 마지막으로 졸업 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단계는 현장에 들어가기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텍스트 작성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로 여기서는 전술한 듯 약 4개월 기간 동안 만남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뉘앙스와 느낌 역시 현장 텍스트로 기록하고 수집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단계는 파편화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문작성을 고심하는 단계로 정리된 면담자료들을 읽고 또 읽음으로써 연구 텍스트 작성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단계는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로 여기서는 동일한 연구방법 및 연구 주제로 작성된 논문들을 읽으며 본 연구에 적합한 구성 및 글쓰기를 결정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자세한 과정은 이리했다. 먼저 1차면담의 비구조화 면담을 통해 시간적 틀이 구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2차면담에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주제 도출이 이루어졌다. 1차면담에서 도출된 시간적 틀은 첫 번째, 전향, 진입(무용에서 체육학을 선택하는 과정의 경험), 두 번째, 경험, 수용(체육학 석·박사 과정에서 경험), 세 번째, 간극, 노력(박사학위를 마치고 강사 및 연구원의 경험)이었고, 이것을 토대로 하위주제(1. 현실적 선택이었던 체육학, 2. 이방인으로서 무용전공자: 가. 위계적 문화, 나. 고정관념, 선입견, 다. 다른 전공자로서 한계, 3. 끊임없는 인정투쟁: 가. 좁히지 못하는 간극,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를 도출할 수 있었다.

4.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1991)가 제시한 기준 중에서 동료검증(peer debriefing)과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을 통해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이 가능성은 유사한 상황에서 연구결과가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 시켜준다. 여기에서는 독자 및 타연구자들로 하여금 본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의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두터운 설명(thick description)’을 실시하였다. 동료검증의 경우 스포츠사회학 및 스포츠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동료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만남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전사내용과 1차 연구결과내용을 먼저 전달하고 만나 면담내용과 연구결과 간의 차이 또는 편향된 해석은 없는지 논의하였으며, 2차 만남에서는 논의된 내용의 수정여부, 혹은 1차에서 놓친 오류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자칫 연구자가 놓칠 수 있는 오류와 문제를 찾아내고 걸러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5.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동의서는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것(Seidman, 2006)이기에 본 연구의 연구참여동의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연구참여자의 권리’, ‘연구참여에 대한 혜택’,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 ‘연구 결과의 공개’, ‘연구자의 연락처와 연구참여동의서의 사본’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녹음된 면담내용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또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되지 않고 폐기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무용전공자의 ‘체육학자 되기’ 과정

1. 전향, 진입: 현실적 선택이었던 체육학

학부과정에서 무용을 전공한 그녀들은 왜, 어떻게, 대학원을 체육학과로 오게 되었을까? 동일한 전공으로 대학원을 가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는 일일 텐데 말이다. 여러 가지 배경이 존재하겠으나 먼저 무용학과의 사정을 들 수 있다. 2020년 교육통계서비스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무용학과는 41개가 있으며 석사과정은 29개, 박사과정은 12개(교육통계서비스, 2020)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중 4년제 대학은 대략 32개 정도로 추정된다(이종희, 2020). 무용학과가 타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도 아니며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교육정책(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학과가 폐과하고 있는 것³⁾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이 무용학과로 대학원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기 충분하다. 그리고 대학원과정으로 체육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체육학과와 무용학과 사이의 친화성 때문일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오래전부터 무용학과는 예술대학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체육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많은 체육학과에 무용전공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체육학과는 전국에 286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석사과정 184개, 박사과정은 102개나 존재(교육통계서비스, 2020)하는 상황이기에 무용전공의 연구 참여자들이 체육학과의 석·박사과정을 선택하는 일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을 테다. 다시 말해 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 참여자들 역시 무용전공의 아쉬운 현실로 인해 체육학과로 대학원을 선택했음을 털어 놓았다.

(교육학석사)학위를 따서 사립학교에 무용교사로 가야지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다면 여자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남자교사는 너무 적고, 체육교사라도 남자교사를 뽑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교원자격증을 따려고 A대에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체대를 온 거지. (김진영, 45)

무용쪽으로는 박사학위가 없다. 힘들다. 애초에 석사부터 동일한 전공을 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경성대도 부산대도 없어요. (서동주, 44)

졸업 후에 겪고 있는 부분 얘기해 드리면 무용쪽은 특히 체육쪽보다 졸업후 진로가 불투명해요. 뭔가 폭넓은 진로 선택을 위해 대학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무용쪽이나 무용교육이 체계가 부족하기까. 비단 교수임용 이쪽뿐만 아니라 교사임용을 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김현정, 41)

김진영은 처음 중등학교의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무용교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무용은 임용고시와도 무관하였기에 체육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교원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체육교육전공의 교육대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김현정 역시 무용쪽의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녀는 덧붙여 대학원의 학문적 체계성의 아쉬움도 이야기했다. 석·박사과정으로 수학하기에는 무용학과 보다는 체육학과가 낫다는 것이었다. 축소·폐과에 봉착한 현실, 그런 현실에 따라 전국에 박사과정이 개설된 학교가 12군데뿐이라는 무용학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였다. 지방대학에 있는 서동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부산의 경우 그녀가 대학원에 들어갈 당시 무용학과에 박사학위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지금은 그 지역에 1개 대학에만 무용학과가 존재하는 형편이다. 최근 지역대학 무용학과의 현황을 살펴본 이종희(2020) 역시 부산, 대전, 전라 지역에서 무용학과의 폐과 및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렇듯 무용전공자인 연구 참여자들이 학문을 목적으로 무용학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체육학과를 선택해야만 했던 데는 무용학과의 안타까운 현실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경험, 수용: ‘이방인’으로서 무용전공자

가. 위계적 문화

여성이 다수인 조직과 남성이 다수인 조직 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누구나 짐작 가능한 부분이다. 학부에서

3) 최근 10여 년간 무용학과가 폐과한 사례는 서원대학교(2005), 청주대학교(2009), 대전대학교(2009), 동아대학교(2015), 원광대학교(2012), 대진대학교(2014), 우석대학교(2014), 순천향대학교(2014), 광주여자대학교(2015), 예원예술대학교(2017), 경성대학교(2017), 신라대학교(2021)에 이른다.

무용학을 전공했던 연구 참여자들 역시 석·박사 과정으로 체육학을 전공하게 되며 문화적 이질성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체육관련학과가 지니는 상하위계가 확실한 군대식의 위계적 문화였다(김세웅, 장경로, 2005; 이남미, 이흥구, 2009).

회식 때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약간 군대 같은 그런 거지. 선배 오면 다 일어나고 그런 거. 무용도 자리를 마련해줘요. 의무감에 이려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 그리고 선배들이 다 나오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중간생략) 군대가 계급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듯이. 체육과도 막내는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은 회식 2차 자리를 물색하고... (김진영, 45)

모 선배가 논문지도를 할 때 나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한테 컴뽀를 받으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안했죠. 저랑 같이 식사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시켜서 전화를 해가지고 컴뽀 받아라했는데, (중간생략) 선배들도 후배들한테 더 권위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장혜진, 51)

무용학과 역시 선후배간의 위계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이현진, 2005; 조진희, 2009). 하지만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분명 적응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은 처음 체육학과에서 겪었던 문화에 대해 ‘군대 같은 것’이라 표현했다. 그녀가 목격한 선후배의 관계는 무용학과에 비해 수직적이었다. 군대에서 계급에 따라 주어진 임무가 상이하듯이 체육학과 대학원에서는 석사 1년차, 2년차, 박사 1년차의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선후배에 따라 연구실의 일이 주어졌다. 이는 자칫 체계적인 듯 보이면서도 그녀에게는 무척이나 낯선 광경이었다.

장혜진은 논문지도과정에서 지도교수님을 만나기에 앞서 선배의 확인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그것은 선후배 간의 아름다운 동료애의 표현이라기보다 중간관료의 확인·결제에 보다 가까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선배의 일방적인 논문확인을 거부했고, 그것은 다른 동료들 통한 압박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체육대학원에 입학하고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무용학과 보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선후배 문화에 적지 않게 당황했음을, 그리고 적응하는데 있어서도 다소 시간이 걸렸음을 고백했다.

나. 고정관념, 선입견

체육관련 조직에서 여성은 오랫동안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Claringbould & Knoppers, 2012; Fink, 2016)되어 왔으며, 체육학과 내 여학생들 역시 남성 중심적 학과문화로 인해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받아왔다(이민규, 김동일, 2019; 최원석, 2016). 그렇다면 학부가 무용전공이라는 이방인의 입장인 동시에 여성이기도 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어떠했을까? 실제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상황에서 무용전공자로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경험했다.

00교수님은 무용과는 공부도 못하는데 계속 여기로 넘어 온다고. 그거를 대놓고 얘기해서... (김진영, 45)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영문 키보드를 안보고 친다거나 아웃룩 메일을 쓴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도 다 하나? 하면서 왜 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나? 그런 거. (서동주, 44)

김진영은 1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은퇴하신 00교수님의 첫 만남과 말씀을 잊지 못한다. 당시 그녀는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인사차 00교수님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녀가 들은 것은 ‘무용과는 공부도 못하는데 계속 체육학과 대학원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었다. 민망했던 그 말은 당시에 무용학과를 향한 고정관념, 선입견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무용전공자들이 대학원에 들어와 체육학을 처음 접한다는 점과 무용학과에서 오랫동안 이론보다 실기 위주의 공연에 집중해왔다는 배경에 따라 ‘무용전공자가 체육학전공자에 비해 열등한 역량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숨어있었다. 차별적 발언의 당사자였던 그 교수님은 은퇴를 하였고, 비슷한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 역시 이제는 없지만 그런 시각은 여전히 모습을 바꾸어 잔존하고 있었다.

서동주는 무용전공자를 향한 열등한 역량을 지녔을 것이라는 시각을 빈번히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녀가 영문키보드를 보지 않고 작성했을 때, 아웃룩(Outlook) 메일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것도 다 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것은 “무용을 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냐?”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것은 체육학 전공자와 무용학 전공자 간의 ‘고정관념’, ‘선입견’과 ‘상징적 위계’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다. 다른 전공자로서 한계

연구 참여자들은 앞서 살펴보았듯 ‘문화의 이질성’, ‘위계적 시선’으로 힘든 경험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본인 스스로가 지닌 한계를 마주함으로써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전공 수업에서 이와 같은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분명 체육학의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의를 해온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체육을 학부에서부터 전공한 학생들에게 이론 강의를 하고 스포츠와 관련하여 예시를 드는 것은 여전히 자신 없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내가 맨 처음에 스포츠 000(이론) 수업을 해야 된다. 남자애들보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시를 들기가 어려워요. 관심 있는 팀이라고는 롯데에 관심이 있지만 몇 승 몇 패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예시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이 김연아라든지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컸고, 올림픽, 월드컵 남들이 다 아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예시를 들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할 때 남자 애들이 이 수업을 훨씬 더 많이 들으니까. 남자애들이 공감할 만 한 거리를 던져주지를 못한 거... (김현정, 41)

수업에 대한 것은 두렵죠. 대학원 수업이든 학부수업이든 체육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제가 아무리 박사라도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민폐가 아닐까 그런 점도 있고, (장혜진, 51)

가끔씩 00교수님이 질문 같은 거를 던지고 할 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물을 때, 이런 부분들 무용을 했던 사람으로서 답하기가 애매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애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아 내가 무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한 계구나. (서동주, 44)

김현정은 체육학을 학부에서부터 전공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들에게 보다 교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예시를 들고 싶지만 그것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감할 만 한 거리를 던져주지 못한 거...”라며 말을 흐리는 그녀의 말투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게 묻어났다. 장혜진 역시 본인이 학부에서

부터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전공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여 민폐가 되는 것은 아닐까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서동주는 교수님, 동료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 스포츠 관련한 이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당황했었다고 고백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이러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실감했다고 했다. 체육이 아닌 무용, 즉 다른 학부전공자가 배우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 간극, 노력: 끊임없는 ‘인정투쟁’

가. 좁히지 못하는 간극

연구 참여자들은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부족함을 직시하면서 또 그것을 메우기 위해 다분히도 노력해왔다. 그것은 무용전공자가 아니라 체육학자로서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 담금질이었다. 물론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학부무용전공자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의도는 아니다. 무용전공자로서 정체성은 버리지 않으면서 체육학전공자, 즉 체육학자로 거듭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그래서 그들은 체육학자로서 인정받고 ‘교수’가 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었다. 하지만 교수임용 지원과정을 여러 번 경험하며 어김없이 드러난 것은 학부무용전공자들과 학부체육학전공자와의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었다. 마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경쟁자 간에 벌어진 거리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았다.

어떻게 보면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도 있고 그래서 갈수록 이 체육과 관련된 학과로 임용이 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석사박사를 체육쪽으로 하더라도 학부가 어디를 나왔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막상 졸업을 하니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김현정, 41)

체육과는 서열, 선후배 질서 이런 것들이 되게 짙잖아요. 자문을 구할 때도 선후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위축도 되고 한계를 느끼고 선후배 그런 게 없다는 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있어서는 우리는 부족하다보니까. (중간생략) 또 체육쪽으로 인맥들, 학생들을 결국에는 취업을 시키고 진로를 잡아줘야 하는데 그런 선후배에서 안되다 보니까. 그런 인맥에 대한 한계.. (서동주, 44)

이러한 차이에 대해 김현정은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고 표현했다. 박사를 졸업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교수임용 지원과정을 경험하면서 대학의 많은 사람들이 ‘학부출신이 어디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명문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미 학부전공이 무용학이라는 것은 큰 약점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출신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녀는 이것을 한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또 다른 차이로 이어지면서 학부무용전공자와 학부체육학전공자와의 간극을 더욱 벌려 놓는다는데 있었다. 서동주는 체육학과 특유의 위계적 질서만큼이나 체육계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며 부러워했으며 상대적으로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못한 자신을 안타까워했다. 이는 강사생활을 하며, 또 교수임용 지원과정을 경험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줄 곳이 마땅히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덧붙여 그녀는 이러한 체육계 내 연결망 부족 혹은 사회자본의 부족이라는 것이 대학의 교수임용과정에서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최근의 대학의 사정을 생각하면 학생취업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넓은 인맥,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학부체육학전공자와 비교한다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학부무용전공자인 그녀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학자로서 자리 잡는데 있어 학부무용전공자와 학부체육학전공자 사이에는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좁힐 수 없는 간극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박사과정 여성비율은 41%,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여성비율은 38%인데 반해 전체 여성교수의 비율은 23.8%였다. 여성이 교수가 되는데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여성이면서도 학부전공이 체육학이 아니라는 약점을 지닌 이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학부체육학전공자와 경쟁에서 시작점이 달랐다는 이유로 좁힐 수 없는 그 간극의 존재를 연구 참여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논문투고를 통한 실적의 축적) 하

는데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럴 때면 하기 싫어지는 거지..에효.. (김진영, 45)

지도교수님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 학위를 00쪽(체육, 무용이 아닌 의학 관련)의 다른 전공)으로 다시 한 번 해볼까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반대를 하셨지만... (서동주, 44)

그래서 김진영은 지쳐있었다. 교수임용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느끼는 듯 했다. 매번 다시 일어나 수업·논문에 매진하며 교수임용에 필요한 실적과 요건들을 쌓고 힘을 내보았지만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시로 든다고 토로했다. 서동주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학위를 하나 더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진지하게 고민까지 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체육학자로서, 교수로서 취업하고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었다.

골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거 하나라도 받으려고. 연습도 하고, 레슨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배운 거 가지고 수업하는데, 나는 레슨 엄청 받았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남들만큼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요가자격증, 필라테스 자격증 이런 거를 땀겨드요. 라인댄스 자격증. 여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어차피 스포츠로는 공략을 못해요. (김진영, 45)

체육쪽으로 임용을 넣으려고 하니까. 부족한 실기를 채워야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구기, 체조, 육상, 수영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체대 입시하듯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처럼 뉴스포츠 이런 거 하는 거죠. (서동주, 44)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제가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나름대로 SCI도 쓰고 하는데...프로그램 개발, 교안을 개발하고 이런데 집중을 했죠. 이런 것은 내가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현정, 42)

김진영은 한 가지 스포츠종목이라도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상대적으로 여러 중

목에서 실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이자 학부체육학 전공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었다. 이미 그들처럼 여러 종목의 기능적 능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하나라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김진영은 골프에 있어 누구보다 레슨을 많이 받는가 하면 무용전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서동주 역시 부족한 실기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시간을 내어 고등학생들이 체대 입시하듯이 노력했고, 상대적으로 익히는데 어려움이 덜한 뉴스포츠에 있어 전문성을 키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집중하기도 했다. 물론 학문적 분야에 있어서도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 그리고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특성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은 애초부터 불리한 경쟁구도에서 체육학자로 인정받고 자리 잡기 위한 끊임없는 ‘인정투쟁(the struggle for recognition)’에 다름 아니었다.

IV. 나가며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학부시절 무용을 전공한 이들이 체육학자가 되는 과정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크게 세 가지의 시간적 틀에 따라 첫째, 전향, 진입: 현실적 선택이었던 체육학, 둘째, 경험, 수용: ‘이방인’으로서 무용전공자, 셋째, 간극, 노력: 끊임없는 ‘인정투쟁’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전공의 아쉬운 현실로 인해 체육학과로 대학원을 선택했던 것이었으며, 그렇게 전향한 체육학계에서 그들은 체육학 내 위계적 문화로 인한 문화적 이질성을, 무용전공자를 향한 고정관념 및 선입견을, 그리고 무용전공자로서 스스로 한계를 경험하며 ‘이방인’의 위치에서 나름 적응해나갔다. 학위를 마치고 그들은 교수임용을 목표로 체육학자가 되기 위해 정진하지만 학부무용전공자와 학부체육전공자와의 좁히지 못하는 간극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체육학자로 인정받고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며 끊임없이 ‘인정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래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들의 경험과 이야기에 귀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무용계의 안타까운 현실과 그에 따른 선택, 그 선택과 동시에 이겨내고 적응해야 했던 이방인으로서 생활,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느끼면서도 학부체육전공자와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좁히기 위한 끊임없는 인정투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체육학 내 소수자로서 고군분투하는 그들이 들려준 어려움의 해결책을 여기서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 동안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쳤던,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들의 고충과 경험을 담았다는 점,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체육계 무용전공자의 삶과 어려움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아젠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작은 의의를 지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학부무용전공자로서 체육학자 되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생애사연구 또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들의 체육학자로서의 성공적인 안착과정에는 어떠한 경험과 요인이 작용했는지, 그 중에서도 본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느꼈던 한계, 학부체육전공자와의 줄이고 싶어했던 그 간극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담아낸다면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약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가 체육학을 전공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Clandinin과 Connelly에 의해 고안된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였고, 일반적인 사례방법에 따라 4명의 여성체육학박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을 이용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문서화 한 후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전향 및 진입의 단계에서 그들은 좁은 직업적 선택의 범위와 무용이 체육교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체육학에 입문하게 되었다. 둘째, 그들은 체육학자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서 무용학과와는 다른 형태의 위계적 문화를 접하게 되었으며 무용학부 졸업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 그리고 다른 전공자로서 체육실기 능력이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한계를 경험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인정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그들의 경험을 한번쯤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체육계의 무용전공자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의논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무용, 체육학 박사, 내러티브 탐구

참고문헌

- 고경희, 백현순 (2013). 대학 무용학과의 미래전망. **한국무용연구**, 31(3), 23-40.
- 교육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2019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 사업성과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교육통계서비스 (2020). **학과계열별 학과수**.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2&cd=5064&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20803&uppCd1=01020803&uppCd2=01020803&flag=A
- 권인선 (2016). 무용전공 박사과정의 교육과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485-501.
- 김세웅, 장경로 (2005). 대학운동선수들의 조직사회화과정에서의 멘토링의 역할.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8(1), 87-101.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우석 (2021). 여성 체육학자로서의 순응과 저항: 여성 대학원생의 적응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4(5), 145-157.
- 김화영, 배재열 (2021.03.17.). [뉴스 분석] 부산 남은 무용과 1곳 “실용만 좇으면 순수학문 누가 지키냐”.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10318.22002005655>
- 신주영 (2018). 무용전공 체육학 대학원생의 정체성 형성과정. **한국무용학회지**, 18(1), 13-23.
- 염지숙 (2002).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이남미, 이흥구 (2009). 체육대학 신입생 길들이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2(4), 19-43.
- 이민규, 김동일 (2019). 내러티브 관점에서 바라본 체육계열 여학생의 학과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고충.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3(3), 53-67.
- 이의재, 방서영, 김보미 (2020).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의 체육수업 경험 이야기. **한국무용학회지**, 19(4), 27-42.
- 이종희 (2020). 지역 대학 무용학과의 현황과 전망: 대구·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56, 29-52.
- 이지선 (2016). 대학무용교육 현황 및 변화,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4(3), 99-114.
- 이현진 (2005). **무용전공대학생의 신체·언어 폭력경험 실태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장서이, 박혜연, 최의창 (2018). 체육교사로 정착하기: 무용전공자의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 형성 양상과 요인. **체육과학연구**, 29(1), 138-153.
- 조진희 (2009). 무용전공 대학생의 선후배간 체벌경험실태 및 체벌경험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2(2), 131-146.
- 진보연 (2021.05.20.). 무용교육혁신위원회, ‘무용’의 공교육 교과목 채택 국민제안. 서울문화투데이.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22>
- 최원석 (2016). 여자 예비체육교사의 젠더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1), 1-13.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1). *Narrative and story in practice and research*. In D. Schon (ED.), *The reflective turn* (pp.258-281).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laringbould, I., & Knoppers, A. (2012). Paradoxical practices of gender in sport-related organizations.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6(5), 404-416.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Fink, J. S. (2016). Hiding in plain sight: The embedded nature of sexism in sport. *Journal of Sport Management*, 30(1), 1-7.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Teachers college press.